국내
마감시황

2026.3.20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긍정적인 소식 전해지며 상승

이스라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과 조기 종전 가능성 언급

저PBR, 원전, 소비 관련주 강세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781.20pt (+0.31%)	1,161.52pt (+1.58%)	862.50pt (+0.02%)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95.20 원 (+0.2 원)	3.6590% (-3.4bp)	6,655.25pt (-0.07%)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22,345 억	-1,011 억	-424 억
외국인	-26,752 억	+2,185 억	-3,286 억
기관	+4,034 억	-923 억	+3,638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이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더 이상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해상에 묶인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조만간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원유 공급 기대감이 더 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일축했고,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재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들로 인해 과도했던 중동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KOSPI는 0.31%, KOSDAQ은 1.58%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31.1조원, KOSDAQ은 약 13.9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2.6조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기계/장비와 화학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에서 4천억원 가량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오락/문화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저PBR 종목 목록을 상시 공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반등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속 원전, 건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말 BTS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 전망에 화장품, 음식료, 유통, 항공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조기 종전 기대감에 방산주가 하락했습니다. 그 외 조선, 피지컬 AI, 엔터주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GS건설(+22.54%), 이마트(+6.67%), 아모레퍼시픽(+4.53%)이 올랐고, 레인보우로보틱스(-8.71%), LIG넥스원(-5.84%), 하이브(-2.96%)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